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2024. 1. 16 (화)	보 도 자 료
	담당 : 정책위원회 정책실 연락처 : 02)6788-2606

윤재옥 국힘 원내대표의 '양곡관리법· 농안법' 발언에 대한 입장

❑ 오늘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, 농안법 등 주요 법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였기에 이를 규탄하며 바로잡고자 합니다.

❑ 윤 대표는 오늘 국민의 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작년에 폐기한 양곡법을 또다시 통과시켰다며 물의를 빚고 탈당한 의원을 활용한 폭거라고 하였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개입해 시장 작동을 멈추게 하는 저열한 좌파 정책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.

❑ 그러나 이는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망발입니다. 어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미국,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이고,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 기존 양곡관리법과 다른 내용의 법안임에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.

❑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평년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하고, 올해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이 너무 심각하여 농가경영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입니다.

❑ 또한 가격안정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폭락할 경우 시장격리하고, 기준 이상으로 폭등할 경우 정부보유곡 판매를 의무한 조항 역시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 발동되는 것으로, 정부에 재량권을 준 조항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마저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누차 밝혔음에도 국민의 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심의도 하기 전에 퇴장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

다.

❑ 상황이 이러함에도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법안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채 좌파 정책이니 의무매입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야 말로 총선을 앞두고 민생법안을 흠집내려는 악의적 선동에 불과한 것입니다.

❑ 국민의 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. 반대만 하지 말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도입되어 농가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대안부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 1. 16.(화)

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 개 호